

교수와 대학의 품질관리

유 한 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

교수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다. 교수들이 상아탑 안에만 머무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좋다. 교수들도 현실감각을 얻게 되니 일석이조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수들의 행태를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유형별로 이들의 활동을 분석해 보자.

첫 번째는 정부 부처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다.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면 정책방향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리를 놓고 암투가 치열하며 학교별로 안배를 하는가 하면 위원자리를 따기위해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름이 나게 마련이며 그러다 보면 정부기관에서도 눈여겨보다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그런 과정을 못 참아 출을 대고 청탁을 해서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 매우 실망스럽다.

두 번째는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다. 이들 중 일부는 사외이사를 부수입을 올리면서 대접받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에 대한 견제기능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교수 출신 사외이사로 경영진과 마찰을 빚어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는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다. 시민단체의

역사가 짧아 전문가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교수들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없는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위를 받고 귀국해 10년 이상 논문을 발표하고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 자타가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겨우 경력 2~3년된 교수가 시민단체의 위원장 자리를 얻어 맹활약하는 것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다. 왜 학문적 활동보다 시민단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언론에 기고할 때나 방송에 출연할 때, A 대학 누구 누구 교수라는 직명보다 무슨 운동본부 이무개 단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직업이 교수이고 봉급도 대학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은 숨긴 채 시민활동가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왜 그런 사실을 용납하는 것일까.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꽤 알려진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보기에는 학문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재벌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메스컴을 타는 것이 출세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이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학회활동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다. 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교직에 있으면서 정치권이나 업계 내부 깊숙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발언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를 깨닫고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아예 발언사실을 부인하기도 한다.

예컨대 기아사태의 경우를 보자. 기아는 국민기업이니 살려 내야 하고 절대로 재벌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기아가 현대에 인수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전의 그 소신들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

삼성자동차와 관련된 이근희 회장의 사재출연문제가 그렇다. 사재출연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면 누군가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경영에 실패했으니 법적 책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사재를 내놓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정신을 살리기 위해 사재출연은 안 된다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평소 기업 이야기를 즐겨하고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 한쪽으로부터 비난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우는 빛이 많아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그룹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영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우가 오늘날까지 성장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 해악만 끼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대우를 위해 변명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대우는 재단을 가지고 있고 그 재단을 통해 언론인과 학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었다. 그러면 대우로부터 혜택을 받은 학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단 말인가. 재벌이 나쁘다면 재벌이 제공하는 장학금은 왜 받

았단 말인가.

우리 나라에는 존경할 만한 석학들이 많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학과가 이루어지고 그런 학과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볼 때 든든하기도 하다. 예전의 서강학과, 또 최근의 변형운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학과 등이 좋은 예이다. 경제계뿐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등에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본다. 학자들은 이같이 학회나 학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통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보강할 욕심에 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징발하는 바람에 교직을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듯 하다. 교수라고 해서 출세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학문적 성취를 하고 난 뒤의 일이다. 젊어서부터 이 단체 저 단체나 기웃거리며 교수직 이외의 직함을 서너 개씩 명함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그들이 부지런히 다리품을 파는 것은 언론에서 띄워주기 때문이다. 언론의 속성상 센세이션한 것을 좋아하므로 학문적 양심과는 관계없이 직설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언론에서는 전문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지면 구성상 구색을 갖추는 데 필요한 말을 해 주느냐, 해 주지 않느냐만 중요하다.

기업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품질관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학자들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직에 있으면서 논문은 쓰지 않고 사회활동만 한다면 분명 품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왜 교직에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한**

유한수

서울대 건축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Columbia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으며, 미국 Purdue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하고 재무부 행정사무관, 미주조 선일보 기자 등을 지냈으며 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 포스코 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로서 재정경제부 기업배구조 개선위원회 자원위원, 과학기술부 경영혁신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